

## 박서보, 〈묘법 No. 180411〉, 2018

/ 송애리

박서보는 자신의 작품이 현대인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기를 희망한다. 그의 〈묘법(描法) No.180411〉은  
온통 붉게 물든 가을산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붉은색 빛깔이 캔버스 화면 속 저 멀리의 세계로부터 스며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박서보 2018년작 〈묘법(描法) No.180411〉은 후기 〈묘법(描法)〉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그는 19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한지와 수성 안료를 사용해 〈묘법(描法)〉 연작을 제작하고 있다. 이 연작은 물에 불린 한지를 붙이고, 밀어내고, 긁고, 바르는 행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며 완성된다. 수행을 행하듯 한지를 수십 번 밀어내고 다듬는 과정에서 화면에 긴 세로의 고랑 생긴다. 이 고랑들은 화면에 진동하는 듯한 색채의 리듬을 만들 뿐 아니라, 특유의 입체감을 부여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박서보는 한지 사용을 자연관과 연결해 설명한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즉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일원화하죠. 이원화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살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을 사는 거지. 한지는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다 꺼안죠. 그러면서 합일을 합니다. 우리 자연관의 세계하고 굉장히 일치가 되죠.”<sup>1)</sup>

박서보가 〈묘법(描法)〉 연작에 처음으로 색도 붉은색이었다. 작가가 칠순을 축하하는 전시를 일본에서 개최했을 때 방문한 후쿠시마 반달산 골짜기에서 타오르는 붉은 단풍에 홀린듯 매료된 것이다. 그는 “단풍이 새빨갭게 타서 나를 태울 것처럼 다가왔다”고 회상한다. 가을철 단풍이 햇볕에 따라 그 빛깔을 달리하는 것처럼, 박서보의 〈묘법(描法)〉에 나타나는 색채도 한마디로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그는 푸른 빛깔이 도는 〈묘법(描法)〉 앞에서 코를 대고 숨을 마시며 ‘숨 색’이라 말하고, 노란 빛깔이 짙은 〈묘법(描法)〉 앞에서는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개나리 색’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묘법(描法)〉의 색은 자연의 색이자 동시에 ‘치유의 색’이다. 그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첨단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작품이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기를 염원한다. 작가 스스로가 자연에서 큰 위안과 감동을 얻은 것처럼 말이다.

박서보는 1979년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기획전 《한국현대미술 4인의 방법전》에 참여하면서 갤러리와 첫 인연을 맺었다. 이 전시는 당시만 해도 화단의 비주류에 속하던 추상화에 관한 관람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기획전으로, 김창열의 ‘물방울 회화’, 박서보의 〈묘법(描法)〉, 윤형근의 〈Blue-Umber〉 연작, 이우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와 같은 작품을 ‘방법론’의 관점에서 최초로 조명했다. 훗날 한국 미술계에 모노크롬 회화가 중심으로 떠오르는 시대를 예고한 전시로 평가받는다.

당시 박서보가 선보인 초기 〈묘법(描法)〉은 글을 쓰듯 ‘그리는 방법’을 실험한 연작이었다. 초기 〈묘법(描法)〉은 캔버스에 흰 안료를 바른 후, 연필을 이용하여 드로잉을 하며 완성된다. 작가가 안료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그으면 화면에 필압에 밀려 나간 안료가 화면에 길을 만든다. 그 모습은 작가의 신체 운동과 리듬감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후 다시 덧바르고 그리기를 반복하는데 이에 따라 선이 여럿 중첩하게 된다. 이 〈묘법(描法)〉은 1960년대 후반,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회화의 근본적인 의미에 주목하며 탄생했다. 흥미롭게도 이 연작은 작가 아들의 낙서를 보고 만들어졌다고 한다.

“마치 발을 갈아 이랑을 만들면 밀려나 쌓인 흑인 선조를 형성하여 인위와 자연이 합일이 된 하나의 풍경을 만드는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양상은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문인화에 비유했듯이 선과 면, 즉 드로잉과 페인팅이라는 서구미술의 이원적 구분을 해소하고, 바탕과 제스처를 역전시켜 또 다른 차원에서 일치시킴으로서 독자적 평면성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독보적 의미를 지닌다. “2)

박서보는 《한국현대미술 4인의 방법전》 이후 1981년 11월에 갤러리현대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당시 출간된 갤러리현대의 전시 도록에서 미술평론가 이일은 박서보의 실험이 회화가 당면한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하여 박서보의 회화가 오늘날 도달하고 있는 하나의 극점은 색채와 선의 회화적 극소화와 더불어 그 어떤 색을 ‘칠한다’는 것과 그 어떤 선을 ‘긋는다’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오늘의 회화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의 하나가 아닌가 보여진다.”3)

그 후 박서보는 갤러리현대에서 1988년 《박서보》, 1997년 《박서보》, 2002년 《박서보 묘법 1967-2001》 등 총 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자신의 신작을 발표했다.

- 1) 박서보, <https://www.youtube.com/watch?v=1wGqe3CVGG0>
- 2) 이동석, 「은폐를 통해 발현되는 정신」, 2002, 『박서보』, 갤러리현대, p.11
- 3) 이일, 「박서보의 근작 묘법 시리즈」, 1981, 『박서보』, 갤러리현대, p.4